

## 동구, 회의방식 파격변신 ‘눈길’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그동안 수직적이고 딱딱한 회의문화를 토론식 회의로 새롭게 변화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6월 4일 오전 8시 3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6월 정례조회는 조회는 15분, 직원 주제 발표는 20분으로 35분간의 회의가 진행돼 기존 1시간이상 소요되는 회의와는 방식이나 내용면에서 대폭 개선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주제에 대한 토론시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사업, 행사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대응능력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1세기 친환경도시 생태조경 방안’의 주제로 도시공원녹지와 직원이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설명,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등 직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구에서는 이달부터 정례조회는 1520원칙(15분회의, 20분토론), 간부회의는 2520원칙(25분회의, 20분토론)등을 정해 모든 회의는 1시간 이내로 마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의제를 선정, 우수과제 공모 발표자는 연말에 평가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 동구, 인구 24만 돌파!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7월 4일 오후 2시 산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인구 24만 돌파’ 행사를 실시했다.

대전시 동구가 ‘인구24만 돌파’를 경축하고 24만 번째 전입한 행운의 주인공들에게 대대적인 환영식을 하는 등 축하 이벤트 행사를 가졌다.

7월 4일 오후 2시 산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우 동구청장을 비롯해 구의회의원, 전입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4만 번 직전·직후 전입자 3명에게 축하 꽃다발과 기념패를 증정하고 기념 촬영, 구청장과 티타임을 갖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치러졌다.

24만 번째 주인공인 김선중(30)씨는 “대덕구에 살다 결혼해서 분가해 이곳으로 이사와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너무 뜻 깊은 자리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가양동에 사는 박동규(34)씨는 “아이가 1살이고 24만 첫 번째라는 행운이 겹쳐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며 “앞으로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동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구가 24만 시대를 열어 동구발전의 상승분위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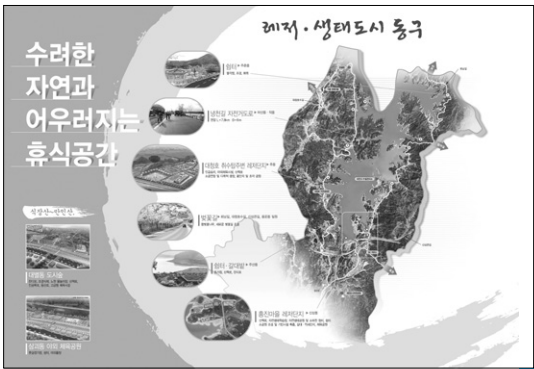
이어가야한다”며“앞으로 교육과 문화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살기 좋은 동구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1992년 31만 명을 기점으로 서구 둔산 지구와 유성구 노은지구 개발로 2005년도에는 23만 명까지 인구가 유출되었으나 동남부권 택지개발 등으로 가오지구에 계속 인구가 유입돼 인구 24만 시대를 맞게 됐다.

또 내년 말까지 낭월지구 등도 입주가 완료돼 구의 인구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동구, 관광·레저 중심도시 건설 '마스터플랜' 나왔다



▲ 레저벨트 조감도

최근 우리사회는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취미활동과 문화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활 패턴의 영향인지 지금까지 업무 중심의 개인 생활이 가족과 더불어 여가를 즐기는 생활중심·여가 중심으로 이동되고, 여가 시간을 이용, 틈틈이 개인의 역량을 보충하고, 건강을 챙기는 등 사회 전반의 풍속도 역시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이에 동구는 이러한 관광·레저·생활스포츠 시대의 사회적 흐름에 대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동구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레저산업을 부흥시킨다는 목표아래「다시 찾고 싶은 레저도시 동구 건설을 위한 기반마련에 지난해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동구는 대청호, 식장산, 만인산 등 자연자원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면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레저·스포츠 인구를 흡인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 대청호취수탑 주변·신상동 흥진마을 일원...생태체험·가족단위 휴식공간 조성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청호 주변과 식장산, 만인산을 잇는 레저벨트 구축으로 관광 레저도

시로 도약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구는 동구 추동과 신상동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오는 2011년까지 총 340억여 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친환경적인 관광레저단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구는 2011년까지 28개 사업 340억원을 투입하여 대청호취수탑 주변과 신상동 흥진마을 일원, 상소동과 만인산 일원, 직동 등을 권역별 개발로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휴양과 관광이 어우러진 인프라를 구축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복합레저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청호 주변 레저벨트구축에 대한 연차별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금년에는 △자연생태관 뒤 산책로 조성 △소공연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 △흥진마을 산책로 조성 △직동 농촌체험마을 조성 △용운-판암-대청동 일원에 왕벚꽃나무 식재로 중부권 최대의 벚꽃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2011년까지 28개 사업 340억원 투입... 갈대·역새단지, 신상동생태공원 등 조성

또 2008년에는 △대청호 취수탑주변 인공생태습지 조성 △흥진마을 주변 쉼터 및 기반시설(도로개설 등) △2011년 흥진마을 산책로 및 편익시설(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한다.

2009년 추진사업은 ‘흥진마을’ 일원에

99,000㎡(3만여 평)에 갈대·역새단지를 조성한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11년에 걸쳐 △취수탑 주변 경관조성과 꽃 단지 및 조각공원 조성 △신상동 자연생태공원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국방저유소 일원에 시민체육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진해 균형제에 버금가는 전국 최고 벚꽃명소로 조성을 위한 대청호식장산 일원을 연결하는 벚꽃길(단지)조성 △1일 생태체험 관광투어 개발 △고봉산 일원 대규모 철쭉단지 및 신상동 일원 야생화 단지 조성 △마산동·주산동 일원 사진촬영 명소 조성 △산악자전거(MTB) 대회유치 △냉천길 자전거 도로개설 등이 추진된다.

## 재래시장과 대규모점포 상생관계를 유지하네!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는 5월 31일 (목) 오후 4시에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구청 주관으로 오류재래시장(상인회장 박기룡)과 백화점세이(대표 손기근), (주)이랜드리테일 홈에버 문화점(지점장 김태일), 코스트코홈세일 대전점(대전점장 문신구) 등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발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오류시장 100m 이내에 대형유통업체 3개소의 입점으로 인해 재래시장의 몰락 위기감이 고조되어 상호간 갈등을 사전 해소하고 상생협력 체계로 발전하여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번 협약식으로 인해 그동안 재래시장과 대규모점포간의 상호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호 신뢰구축과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유통산업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 주요사항으로는 ▲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시책발굴·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지역 상권 활성화의 공동 추진을 위해 유통관련 정보 공유 이벤트 행사개최, 홍보활동, 재래시장 상품권구입 이용 등 ▲ 고객서비스,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점포 경영 등 상거래관리운영기법 교육 등 지원 ▲ 지역상품의 구

매 및 판로개척, 공동물류화 등 추진 ▲ 상생협력발전 협의회 구성 운영 ▲ 기타 상호간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조사·연구 등 사업 전개 등을 상생협력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점포 지점장 및 실무자와 시장대표, 관계공무원 등 8인으로 공동협의체인 가창??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상생 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 중구에 입점하여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패션백화점 엔비 등 5개소와 문창, 유천, 태평, 용두, 산성, 오류시장 등 6개시장과 공동협의체를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그동안의 불신의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재래시장도 살고 대형유통업체의 공익사업 참여 등으로 업체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 주차단속을 트로트로 하네요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관)가 그동안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의 단속 위주로 펼쳐오던 행정을 주민에게 감성으로 다가가는 주차단속 계도 홍보 음반을 제작하여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의 행정홍보는 공공청사 또는 지정게시판에 게재하여 홍보하거나 동사무소 자생단체, 구 직능단체, 구정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펼쳐오던 홍보 방법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홍보를 주민들에게 감성으로 다가가 흥겨운 트로트 가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외닿는 음악을 차량방송에 활용하여 주차단속 계도를 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대중 음악인 트로트를 대전지역 대표가수 나진아의 “복 많은 남자”를 “불법주차는 싫어요!”로 개사하여 교통흐름 등 상황에 따라 음악을 들려준다.

따라서 이면도로 단속 홍보시 노래 4소절 후 단속예고하고, 또한 행사장 주변등 넓은 지역 및 간선도로 일반 홍보시에는 노래전부를 틀어준후 단속예고하는 방법으로 계도홍보 효율성의 극대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주차단속 차량을 이용 현장에서 수시로 홍보하며, 또한 CCTV 관제센터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각종 행사시에도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불법주차는 싫어요! 노래가사 중에는 불법주차로 도로가 막혀 몸살이 나네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로 불법주차하지마세요 등으로 주민에게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주민을 찾아가서 홍보에 역점을 두는 감성 위주의 홍보기법을 행정에 접목하여 운영코자도 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부사칠석놀이 유래비 준공



부사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사칠석놀이보존회(회장 김준현)는 8월 19일 음력 칠월칠석

날을 맞아 부사다목적복지회관 광장에서 이은 권 중구청장, 김영관 대전시의회의장, 하재봉, 이광희, 윤진근 중구의회의원 등 내빈과 주민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사칠석놀이 유래 비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부사칠석제와 같이 열려 오전 7시 보문산 선바위에서 치성을 시작으로 오전 10시에 부사다목적복지회관 광장에서 샘고사를 지내고 폭 0.8m, 높이 3.5m의 화강암으로 부사칠석놀이 유래비를 제막했다. 이번에 설치한 유래비는 전통민속놀이인 부사칠석제를 계승, 보전하고 민속문화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부사칠석놀이는 지난 1992년 중구 민속놀이로 선정되어 1993년 대전시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1994년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부상되었다. 현재 보존회 회원 120여명이 열심히 활동을 하여 매년 칠월칠석일에는 칠석제를 10월에는 부사칠석놀이를 재현하고 있다.

부사칠석놀이는 이 마을의 지명설화에서 비롯된 가장 한국적인 향토축제이다. 특히 풍물과 어울려 부르는 '쌈치기 노래'나 '부용, 사득이의 노래'는 그 독자성이 두드러지며 대전 지방 옷다리 농악의 독특한 가락은 향토성이 짙다.

서양에서는 조그만 유적이거나 설화도 계승 발전시켜 문화관광자원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인 한류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부사칠석놀이를 사물놀이처럼 세계인에게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여 중구의 문화도시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제3회 이팝꽃 축제 개막 “하얀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대전 유성구 봉명동 온천문화의거리에서 5월 12일 열린 이팝꽃축제가 구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다.

봉명동 흥인호텔 에서부터 계룡스파텔에 이르는 거리에는 이팝꽃이 하얗게 거리를 수놓았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팝꽃 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흥겨운 거리 공연을 시작으로 열정의 마당, 민속놀이마당, 전통체험마당, 맛나고 별난 음식마당 등 네 마당으로 나뉘어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다.

“싸게 팝니다. 단돈 500원”이라고 말하는 초등학생 아이부터, “60여 년 전에 해보고 처음 해보는 데”라고 말하며 떡메를 치는 할아버지까지, 향기 가득한 이팝꽃 축제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있었다.

이팝꽃 마차, 호프코너, 유성 재래장터 옛보

기, 벼룩시장, 향토음식 먹거리, 유성 문화유산 알림이 코너 등은 축제를 찾은 손님들에게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 황금돼지 그리기, 감상문쓰기 대회 ‘성황’



지난 5월 4일 오후 2시, 유성구청 광장에서는 황금돼지 그리기 대회가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해 황금돼지막사 주변으로 10여동의 천막이 준비되었고, 그림을 그리고 감상문을 쓰려는 어린이들이 이곳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행사장 앞쪽에서는 행사를 주최한 유성구 관계자와 유성문화원 직원들이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새하얀 도화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고, 어린이들은 이를 받기 위해 긴 행렬에 줄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행사가 시작됐다. 황금돼지를 그리는 학생들은 물감과 크레파스를 이용해 그렸고, 그림을 그리면서 황금돼지를 보기 위해 막

사를 한참동안 바라보고, 다시 돌아와 그림을 그리는 예쁜 모습이 연출됐다.

글을 쓰는 학생들도 그림을 그리는 참가자만큼이나 열정적이었다. 구청에서 준비한 감상문 쓰기 용지에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감상문을 써내려가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렇게 행사는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 온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참가한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관심을 쏟았다.

## 유성구 '책 모으기 운동' 전개 마을문고 및 신설 초등학교에 전달



유성구는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책을 모아 필요로 하는 곳에 전해주는 '책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책 읽은 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구 산하 공무원을 시작으로 기업체, 연구소를 비롯한 유관 기관, 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책 모으기 운동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유성구는 책 모으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본청에 도서 수집창구를 개설하고 공무원과 일반인이 기증하는 도서를 수시로 접수하는 한편 매월 정례 조회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 1권 이상씩 도서를 기증받기로 했다.

또 유성구 산하 사업소와 각 동사무소에도 수집창구를 각각 개설해 기업체, 연구소, 사회단체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로부터 도서를 접수한다.

수집된 도서 중에 2000년 이후 출간된 우량도서는 다시 아동, 교양, 일반서적 등으로 분류해 아파트나 주택가내에 설치되어 자체 운영되고 있는 마을문고나 신설초등학교 등에 분기별로 보내질 예정이다.

## 유성구 대표단, 중국 대련시 서강구 방문,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다짐



진동규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직원과 각동 주민자치센터 문예실장 등 33명이 6월12일 중



국 대련시 서강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서강구 당서기, 울 1월 서강구청장이 유성구를 방문하면서 행정,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방면의 폭넓은 국제교류를 요청함에 따라 답방형식으로 12일부터 3박 4일 동안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유성구와 서강구는 향후 양 도시 간 홈스테이를 통한 청소년 문화체험교류, 학교 참관수업 등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했으며, 친선 축구 경기를 통해 상호 우의를 다졌다.

## 성장한 황금돼지 어디로 갔을까? 아기 돼지로 교체, 판매대금 복지시설에 기탁

유성구가 1월 1일부터 사육하기 시작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황금돼지가 교체됐다. 이에 따라 교체하면서 발생한 돼지의 판매 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천양원에 기탁되었다.

기탁금은 총 72만7천원으로, 이는 성장한 돼지 판매대금 1백23만원 중 아기 돼지 구입대금 40만원과 운반비 10만 3천원을 제외한 것이다.

황금돼지는 지난해 12월 새해를 맞이하면서 황금돼지해를 기념하고자 사육을 시작했다.

당시 진동규 구청장은 황금돼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그 이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구청으로 황금돼지 견학을 오는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졌고 5월에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황금돼지 그리기와 감상문 쓰기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1월 1일부터 사육한 돼지가 다 성장하여 농협을 통해 출하를 했고 그 수익금을 복지시설에 전달하게 된 것이다.



## 주민참여감사제 첫 시행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국내는 물론 선진 유럽국가에서도 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주민참여감사제의 첫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의 방편으로 앞 다투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본격화 하는 중에 대덕구는 한 발 빠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이어, 이제는 주민참여감사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방자치 12년을 거치는 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이은 대덕구의 주민참여감사제도는 지방행정 영역에 주민참여의 폭이 어디까지 갈지 자못 기대를 키우고 있다.

주민참여감사제를 첫 시행하면서 대덕구청장 정용기는 “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그동안은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기책임 부분에서는 소홀히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구정 운영의 잘잘못에 대하여 판단 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이를 옳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며 주민참여감사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7월 1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와 포스터 등을 통한 주민감사단의 공모를 시작으로 제도설명회, 분과회, 감사위원회 등 일련의 과정을 진

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참여감사제를 첫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본 제도를 빠른 시기에 정착시켜 구 행정이 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평생학습도시 선정 영예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평생학습도시는 지난 5월 시 도교육청의 예심을 통과한 4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장의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체제 구축, 명확한 비전과 목표설정 등을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19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대전지역에서는 대덕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충남 천안시와 서천군, 서울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부산 사상구, 울산 중구, 경기 과천시와 안양시, 강원 강릉시와 횡성군, 전북 군산시, 전남 강진군, 영암군, 경북 경산시와 구미시, 경남 진주시와 통영시가 선정되었다

이미 2006년 예비학습도시로 인증을 받은 대덕구는 『행복한 학습도시 대덕』이라는 비전

을 설정하고 지역민의 욕구조사를 통해 평생학습조성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3월 동부교육청과 4월에는 지역언론사와 각각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또한 학습도시 조성의 근간이 되는 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추진위원회와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습기관과 행정기관간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평생학습 정책수립과 방향등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고 있다.

구에서는 대덕구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학습도시로 변모시켜 나간다는 목표아래 신탄지역을 싹터학습권역으로 오정, 대화지역을 일터학습권역으로 송촌, 법동지역을 삶터학습권역으로 설정하고 신탄진도서관과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청소년수련관을 각각 거점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하여 권역별 특색 있는 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의 발원지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덕구가 지니고 있는 동춘당과 회덕향교등을 평생학습과 연계시켜 예절과 효, 다도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고, 권역별 평생학습기관 지원을 통하여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바이올린과 플루트 등 악기를 배울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개함으로써 정서함양과 바른 인성을 키워나가는데 역점을 두며 연말에는 익힌 연주 실력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무대를 마련하여 가족구성원간의 화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계족산과 대청호의 천혜의 자원자연과 대화, 2산업단지를 연계한 환경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시민성장화 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구에서는 금년 9월 창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에 이어 10월에 22만 구민이 함께하는 학습도시 선포식과 축제를 개최하여 행복한 학습도시 대덕이라는 꿈과 비전을 구민의 마음을 모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증가, 5개구 중 유일하게 영화관이나 대형할인점이 하나도 없으며 지하철 노선도에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의 낙후와 소외를 학습을 통하여 정주성을 높이고 지역을 재생해 나간다는 대덕구의 정책방향은 성패여부를 떠나 주목을 받을만하며 대덕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현재의 대덕구는 인구감소, 재정의 악화, 소외계층의 증가등 총체적인 난제에 봉착해 있다”면서 “학습하지 않은 도시는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일본의 가케가와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 머물

러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덕구와 공동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한 김창규 동부교육청 교육장은 “대덕구의 학습도시 추진의지는 상당히 강하고 뜨거우며 이번 평생학습도시 선정은 대덕구만의 기쁨이 아니라 대전의 영광”이라면서 “대덕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대덕구가 학습을 통하여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제6회 계족산 마라톤 대회 성료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주최하고 대덕구 생활체육협의회와 대덕구마라톤클럽이 주관한 제6회 계족산 마라톤 대회가 지난 8월 26일 장동산림욕장 임도 일원에서 전국 마라톤 동호인 1,000여 명과 가족 등 모두 2,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남자부 우승은 양석철(37 전북 무주 무주읍)씨가 54분 56초 기록으로 차지했고, 여자부는 이종애(47 경기 수원 장안 천천동)씨가 1시간 07분 33초의 기록으로 1위에 골인했다.

이밖에 최고령자 부문 조수천(77) 연출상 최윤희(남 46), 이애경(여, 47) 단체상은 대전 사이언스마라톤, 아침편지마라톤 동아리, 한라공

조마라톤동호회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장동산림욕장내 숲속문고에서 출발하여 계족산성을 축으로 능선을 따라 잘 다듬어진 임도 코스 14.5km를 달리면서 산림욕도 즐기고 온몸 가득 생기를 충전하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다.

참가자들은 완주 후 먹는 잔치국수와 인삼막거리가 한껏 행복감을 불어 넣어 주고, 지난해 사라진 맥주 시음회 시간이 올해 다시 찾아와서 달리는 기쁨과 함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대전 마라톤클럽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마라톤에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 주신 협력기관과 대전마라톤클럽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